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민혜 (曹珉惠)*

이은진 (李恩眞)**

이지연 (李之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소진,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25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소진 척도(MBI), 수치심 척도(ISS)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수치심과 소진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소진, 수치심

* 제1저자,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제2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I. 서론

오늘날 교육계는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업무 처리능력, 동료교사·학생·학부모와의 원활한 관계정립 및 갈등 대처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교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달리 실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획일적이고 평가위주의 교육 시스템, 교권추락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사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 중의 하나이며, 교사의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고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임채은, 2011). 교사가 소진되었을 경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쇠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게 된다(Corey, Corey, & Callanan 1998; Raquepaw & Miler, 1989; 이지연, 2011에서 재인용). 이렇게 교사의 소진은 교사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 현실을 좀 더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소진에 대한 정도 깊은 이해를 토대로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이끄는 교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진이란 인간서비스 계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Freudenberger, 197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이 지·덕·체 측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전문직으로 큰 보람과 함께 소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제작한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에서 사용한 소진 개념을 토대로 초등교사의 소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초등교사의 소진 현상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사가 경험하는 정서적 고갈이란 학교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로 학교환경에서 주어진 업무와 관계에서 의욕상실과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인간화란 학생들이나 주변교사들의 변화와 욕구에 무관심하며 정서가 메말라있으며, 학생들과 주변교사들이 비난 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며 냉담하게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학생들을 위한 교수 및 생활지도, 학생과 주변교사간의 관계 면에서 자신감이 감소되어가며 교직에 관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패배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소진에 관해 관심이 주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의 동향은 크게 소진의 부정적 영향과 소진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들(강진아, 2010; 이정영, 2012; 이지혜, 2010)은 교사의 소진이 학생

의 학업과 학교생활, 자기효능감과 교사자신의 정서적 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소진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조직 풍토, 학교장의 지도성 및 관리방식, 학교의 운영정책 등의 학교직무환경적 특성(배인선, 2000; 조중철, 1999; 하태성, 1998)과 교사효능감, 완벽주의, 내외통제, 사기 등의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김미라, 이지연, 이인숙, 2011; 이수남, 1996; 이준엽, 2000)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동일한 환경에 일하는 교사 간에도 개인변인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다르게 경험되고, 이로 인한 소진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임종철, 1991)에 따라 교사의 내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중재하는데 있어서 교사 내적인 요인으로 교사의 성격적 변인과 정서변인의 영향을 고찰해보는 것은 교사의 소진을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박동숙, 2004; 박영주, 2013;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지원, 장은영, 2011)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개인 성격 특성인 ‘자기애’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자기애적 성향이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최임정, 심혜숙, 2010)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평가, 업적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대인관계 영역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격적 변인(한수정, 1999)과 정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을 가지고 교사의 소진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기애는 거만하고 웅대한 자기표상이 타인이 보기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가, 이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 입는 취약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별된다(구현경, 김종남, 2014). 특히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역기능적으로 발현된다(윤성민, 신희천, 2007), 즉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우울이나 불안과 더 연관되어 있으며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대해 민감하여 자기관련 인지가 부정적이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이며 회피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강문선, 2011; 권석만, 한수정, 2000; 박세란, 2004; Miller & Campbell, 2008).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선행연구들(강문선, 2011; 박동숙, 2004; 박영주, 2013;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지원, 장은영, 2011; 이항순, 정남운, 2012)은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소진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소정, 2008; 이형주, 2010). 따라서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소진과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교사는 자기의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고자 늘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내현

적 자기에 성향은 일과 관계 면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거절과 모욕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되고, 인간에게 냉소적이게 되고 성취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소진(Friedman, 2000)과 관련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나 지원체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Seidman & Zager, 1987, 임채은, 2011에서 재인용), 소진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요인을 조망하는 것이 소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지만, 초등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는 성격 특성 중의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 사이에 매개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내현적 자기애는 어린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성격으로 이에 대한 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개효과로 수치심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수치심은 자기존재에 대해 부적절하고 열등하고 공허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느껴지는 자기초점적 정서이며(최인선, 최한나, 2013), 대인관계에서 특히 자극되어 나타나는 정서(심현진, 권해수, 2013; 최임정, 심혜숙, 2010)로,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차원보다는 수치심이라는 정서적 측면이 소진 정도를 감소시키는 접근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인정받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유발되는 정서경험이다(Kohurt, 1971, 오하연, 박경, 2012에서 재인용).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은 높아진다(안봉화, 2011; 한혜림, 2004; 최인선, 최한나, 2013). 또한 수치심은 전체 자기를 극도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기에 대해 부적절하며, 무력하고 숨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자의식 정서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심리적인 부적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ung, 2002). 예를 들면 수치심은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분노, 적개심, 짜증, 타인비난 경향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복종적 행동, 사회불안, 섭식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이인숙, 최혜림, 2005; 최은영, 안현의, 2011;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 증상(불안, 우울 등) 사이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구현경, 김종남, 2014; 박진영, 하은혜, 2010;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최인선, 최한나, 2013)가 입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연관된 다양한 이차 정서 즉, 우울, 분노 등(김현주, 홍혜영, 2013; 박현, 2008; 장영신, 2009; 장진아, 2006; 정미라, 2010; 조효진, 2009)은 소진과 관계가 있다(강문선, 2011; 박동숙, 2004; 박

영주, 2013;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지원, 장은영, 2011; 이항순, 정남운, 2012)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수치심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열등감으로 인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확인받으려는 특징으로 인해 학교환경에서 주어지는 업무(행정, 수업, 행사 등)와 관계 면(학생, 동료들, 학교장, 학부모의 관계 등)에서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인정받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면서 수치심이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장애로서의 자기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인에게 다양한 성격적 특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애 성향(Emmons, 1987)을 의미하며 수치심 또한 정상인이 경험할 수 있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한다.

이지연(2011)은 초등교사가 많은 수의 교과지도, 각종 연수, 대외적 행사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수활동에 몰입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정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커서 심리적으로 소진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실제로 초등교사의 소진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이루어진 연구는 초등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이영만, 2012)와 원인요인으로 완벽주의와 부정적 기분 조절기대치(이지연, 2011)를 조명한 바 있다. 또한 초등교사의 소진이 학생들의 학생생활적응과 학업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강진아, 2010)을 밝혀내었고 초등교사의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김기환, 2012; 이은혜, 2012; 차영희, 2009)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초등교사의 자기애 성향과 소진 사이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교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사의 직무역량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소진, 수치심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수치심은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25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방법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검사사항이 누락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13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교사가 51명(16.3%), 여교사는 262명(83.7%)이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7명(8.6%), 30대는 130명(41.5%), 40대는 89명(28.4%), 50대 이상은 67명(21.4%)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경력은 5년 미만이 35명(11.2%), 5년 이상~10년 미만은 71명(22.7%),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8명(34.5%), 20년 이상은 99명(31.6%)이다.

2. 연구변인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 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NS는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일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문항과 내현적 자기에의 고유문항이 포함된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CNS는 목표불안정(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목표불안정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착취/자기중심성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과민/취약성은 '비판을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소심/자신감 부족은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74,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 부족 .77, 전체 .90 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목표불안정 .9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3, 착취/자기중심성 .84, 과민/취약성 .86, 소심/자신감 부족 .86, 전체 .95로 나타났다.

2)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 MBI)

Maslach와 Jackson(1981)가 개발하고 김정휘(1991)와 강학구(1996)가 번안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MBI는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일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BI는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개인적 성취감 상실(8문항) 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정서적 고갈은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비인간화는 '나는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는 교사, 교직, 학생들로 용어가 바뀌어진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희영과 정민상(2007)이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MBI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83, 비인간화 .66, 개인적 성취감 상실 .74, 전체 .81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정서적 고갈 .85, 비인간화 .77, 개인적 성취감 상실 .82, 전체 .92로 나타났다.

3)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ISS는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 척도 6문항(4, 9, 14, 18, 21, 28번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SS는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이라는 4개의 요인으로 수치심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부적절감은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공허감은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처벌은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실수불안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부적절감 .89, 공허감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4, 전체 .93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부적절감 .92, 공허감 .90, 자기처벌 .84, 실수 불안 .66, 전체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s를 산출하였고,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 소진, 수치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은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79, p<.01$),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도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r=.71, p<.01$), 수치심과 소진의 상관도 높은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9, p<.01$). 이는 내현적 자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점수와 소진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치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2.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VIF, Tolerance 값을 구하였다. VIF는 2.77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36으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95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들 간 상관(n=3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38**	1													
3	.59**	.55**	1												
4	.69**	.60**	.67**	1											
5	.63**	.41**	.50**	.75**	1										
6	.82**	.71**	.79**	.92**	.81**	1									
7	.66**	.34**	.59**	.72**	.63**	.73**	1								
8	.61**	.37**	.48**	.67**	.55**	.66**	.74**	1							
9	.57**	.43**	.55**	.70**	.61**	.70**	.76**	.77**	1						
10	.49**	.51**	.45**	.68**	.62**	.68**	.59**	.54**	.66**	1					
11	.68**	.46**	.60**	.79**	.69**	.79**	.92**	.87**	.90**	.76**	1				
12	.62**	.27**	.47**	.57**	.52**	.61**	.52**	.54**	.53**	.44**	.58**	1			
13	.65**	.38**	.63**	.65**	.58**	.71**	.67**	.58**	.64**	.48**	.69**	.68**	1		
14	.64**	.13*	.51**	.50**	.53**	.57**	.59**	.47**	.50**	.36**	.57**	.58**	.68**	1	
15	.72**	.29**	.60**	.65**	.62**	.71**	.66**	.60**	.63**	.48**	.69**	.90**	.87**	.8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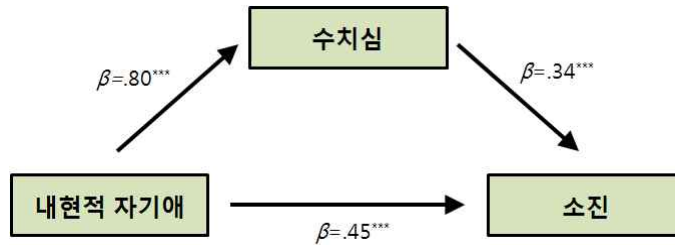
* $p < .05$, ** $p < .01$, 1. 목표불안정,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 부족, 6. 내현적 자기애 전체, 7. 부적절감, 8. 공허감, 9. 자기처벌, 10. 실수불안, 11. 수치심 전체, 12. 정서적 고통, 13. 비인간화, 14. 개인적 성취감 상실, 15. 소진전체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첫째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소진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72, p < .001$),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 = .80, p < .001$).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 = .45, p < .00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치심은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 사이에서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B	SE	β	t	R2(Adj-R2)	$\Delta R2$
1	내현적 자기애 → 소진	.36	.02	.72	18.18***	.515(.514)	
2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a)	.52	.02	.80	23.37***	.639(.637)	
3	1) 내현적 자기애 → 소진	.22	.03	.45	7.09***	.557(.554)	.042
	2) 수치심 → 소진(b)	.26	.05	.34	5.36***		

* $p < .05$, *** $p < .001$



[그림 1]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는 소진 변량의 51.5%를 설명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이 함께 포함된 모델은 소진 변량의 55.7%를 설명하였다. 수치심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내현적 자기에에서 수치심으로 가는 직접효과 a와 수치심에서 소진으로 가는 직접효과 b의 곱으로 정의된다. 보다 정확히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Sobel 공식(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_{ab}=5.10, p < .001$) 즉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 사이에서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 수치심, 소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고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 간에는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이미 선행연구들(강문선, 2011; 박동숙, 2004; 박영주, 2013; 백승혜, 현명호 2008; 이지원, 장은영, 2011; 이항순, 정남운, 2012)을 통해서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와 연관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명한 자기에성향과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내현적 자기에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등교사의 자기에 성향이라는 성격변인과 심리적 부적응 현상인 소진과의 관련성을 조명해줌으로써 소진을 다각도로 바라다볼 수 있게 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교사는 취약한 자기구조로 인해 학교 환경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업무와 관계양상에서 취약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교사는 자기의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고자 늘 학생과 동료 교사, 학교장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수업 및 생활지도, 그 외에 다양한 업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성취감,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지치고,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게 되는 소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소진정도는 다른데,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성격특성 중의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살펴본 것은 교사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은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강문선, 2011; 이항순 정남운, 2012; 한혜림, 2004) 결과와 일치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교사는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좌절에도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치심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으로 인해 야기된다(이인숙, 최해림, 2005). 이러한 수치심은 잘못을 했거나 기준을 어겼을 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국한하여 평가를 내리는 죄책감과 달리 잘못된 행동을 한 전체 자기애에 대한 비난으로 (정은영, 신희천, 2014)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심과 소진도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수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입장(이인숙, 최해림, 2005; 최은영, 안현의, 2011; Jung, 2002;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ngney, Stuewig & Mashek, 2007)을 지지한다. 즉 수치심은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는 교사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비난과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을 매개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면에는 공허함이 자리잡고 타인의 인정에 의해 자기를 확인받으려는 자기애 성향의 교사는 학생과 동료, 학교관리자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여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소진으로 이르게 된다는 과정을 조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를 포함하는 개념(Maslach & Leiter, 1999)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진은 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소진 사이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입증은 교사의 자기에 성향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들(구현경, 김종남, 2014; 곽진영, 하은혜, 2010,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최인선, 최한나 2013)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기에 성향의 교사가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이해하는데 수치심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자기에 성향의 교사들의 소진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수치심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전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과도한 학교업무, 학교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학부모들의 지나친 요구와 개입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므로(이영만, 2012),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다(홍승희, 2009). 초등교사의 소진은 교직사회적응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강진아, 2010, Maslach & Jackson, 1981)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소진은 교육적으로 중요 문제를 유발하는 원천으로 볼 수 있다(이영만,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초등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밝혀내고 자기에 성향과 소진간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인 수치심의 매개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소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서 초등교사의 소진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초등교사들에게 공감이나 해석적 직면을 통해서 응집력 있는 자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돕는 접근법도 제안되지만 자기에 성향 자체를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소진을 위한 완충작용을 하는데 용이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물론 교사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환경이라도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개인변인에 초점을 두는 중재도 절실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진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기에' 개념과 '수치심'이라는 두 가지 개인변인을 검증하였다. 자기에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자존감을 유지하게 된다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자기과시나 자기중심적 태도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된다(서경현, 양승애,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이 건강한 자기에로 발전하고 교육환경에서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수치심에 대한 상담접근이 진행되고 있는데 Van Vilet (2008)은 사회적 연결, 재초점화, 수용, 이해 과정을 통해서 수치심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치료방법으로 수용전념치료가 제안되기도 한다(정은영, 신희천, 2014에서 재인용). 초등교사의 소진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치심에 초점을 둔 접근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에서 교수와 행정업무, 그리고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학교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적절감, 공허감, 수치심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현장과 개인생활에서 익숙했던 회피행동을 직면하고 적절한 행동의 변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면에 파고드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키며, 지금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적절한 자기 이미지와 타인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으며, 자기돌봄을 구축하여 학교환경에서 업무와 관계 면에서 수치심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소진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소진 감소는 교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체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본이 되는 교사의 인성과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자기애 성향과 수치심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배경의 교사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연령과 경력을 분석하지 않았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영만, 2013)에 따르면 교사의 연령과 경력에 따른 소진의 수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예, 장원규, 1990 외 16편). 하지만 교사의 연령과 경력이 혼재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앞으로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과 경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거나 교사의 소진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과 소진의 회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에 대한 정도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소진에 영향 미치는 교사 개인적 요인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소진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개인내적인 요인과 관계역동적 요인을 함께 다루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소진예방과 중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요인과 중재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교사의 수치심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감정인식, 수용, 표현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고안 후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하여 소진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선(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에서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진아(2010).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의 학생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강학구(1996).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특징과 요인간 관계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곽진영, 하은혜(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 구현경, 김종남(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권석만, 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기환(2012). 교사의 권위주의와 자기애 성향이 학생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미라, 이지연, 이인숙(2011). 초등 교사의 기능적 완벽주의 성향과 소진의 관계: 교사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1), 1-15.
- 김정휘(1991).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 신체적 증상 또는 탈진과의 관계: A형 성격과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현주, 홍혜영(2013). 고등학생의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0(12), 181-209.
- 박동숙(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박세란(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영주(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

- 치심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박 현(2008).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 분노, 수치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인선(2000). 초등학교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소진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승혜, 현명호(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경현, 양승애(2010).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53-671.
- 신소정(2008). 교사의 소진과 5요인 성격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심현진, 권해수(2013).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09-3722.
- 안봉화(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하연, 박 경(2012). 사회불안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제적 접근**, 12(2), 77-99.
- 윤성민, 신희천(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이수남(1996). 초등학교 정인지체아 학급 교사와 일반 학급 교사의 소진과 자기효능감과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만(2012).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25(1), 191-214.
- 이영만(2013).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동향. **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26(2), 125-152
- 이은혜(2012).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숙, 최해림(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영(2012).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신뢰,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준엽(2000). 교사의 사기요인과 교사 소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연(2011).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기분조절기대치가 초등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20(1), 45-59.
- 이지원, 장은영(2011). 외현·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41-458.
- 이지혜(2010).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한국교원 교육연구**, 27(3), 143-164.
- 이향순, 정남운(201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 이해**, 33(2), 199-216.
- 이형주(2010). 상담자의 공감, 상태-특성불안, 완벽주의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희영, 정민상(2007). 비합리적 신념이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수상해양교육연구**, 19(3), 467-477.
- 임종철(1991). 학교배경 및 학교상황 요인과 교사 소진 경험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임채은(2011). 초등교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영신(2009).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진아(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정미라(2010).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석사학 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정은영, 신희천(201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1), 183-194.
- 조중철(1999). 학교경영의 자율화 수준과 교사의 소진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효진(2009).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차영희(2009).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 육연구**, 14(1), 225-250.
- 최은영, 안현의(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인선, 최한나(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99-2815.
- 최임정, 심혜숙(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방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1.

- 하태성(1998). 학교장의 관리체계 유형과 교사 소진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수정(1999). 자기에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혜림(2004).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승희(2009).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Friedman, I. A. (2000). Burnout in teachers: Shattered dreams of impeccable perform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6), 595-606.
- Jung, H. (2002). *Sham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for Caucasian and Korean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ola.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slach, C., & Jackson, S.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 Maslach, C., & Leiter, M. (1999). Teacher burnout: A research agenda. In R. Vandenberghe & A. M. Huberman (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teacher burnout* (pp. 295-30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J. D., & Campbell, K. C.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16*(3), 449.
- Tangney, J. P., Stuewig, J.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논문접수 2014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9월 4일 / 게재승인 2014년 9월 22일

* 조민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사소진, 교사정신건강 등이다.

* E-mail: intj2000@hanmail.net

*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학생상담, 장애상담, 교육심리, 관계문화 등이다.

* E-mail: jjetiger@hanmail.net

*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애착, 대상관계, 여성심리, 긍정심리 등이다.

* E-mail: becoming@incheon.ac.kr

Abstract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Burnout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Cho, Min hye*
Lee, Eun Jin**
Lee, Jee Y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in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burnout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is goal, a survey was conducted on 325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in the capital area. Covert narcissism was measured with Covert Narcissism Scale (CNS), burnout with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and shame with Internalized Shame Scale (IS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and positively with shame whereas sham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and covert narcissism significantly predicted burnout, and goal instability, among the lower-order factors of covert narcissism, predicted burnout relatively better. Also, covert narcissism predicted shame, which, in turn, predicted burnout, both significantly. Second, shame partly mediated the link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burnout. The present study bears significance in that it found,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not only covert narcissism, an individual's inner trait variable, affected burnout, but also shame, an emotion-laden variable, affected burnout. It also elaborates on the nature of the link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burnout, and thus, provides implications for helping teachers with covert narcissism for their burnout issue.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overt narcissism, burnout, shame

* First author, University of Incheon

** Researcher,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